

安, 창당발기인 1천명 채우기…文 ‘영입 2호’ 김병관 입당

<웹젠이사회 의장>

총선 D-100 / 더민주·안철수 신당, 인물영입 경쟁 勢불리기 가속도

내년 총선 제1야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새 해벽두부터 새 확산과 더불어 인물영입 경쟁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벤처기업인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당했다. 김 의장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에 이은 문 대표의 ‘인재 영입 2호’이다. 상장주식 100대 부호 순위권에 드는 김 의장은 입당 이유에 대해 “제1야당이 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벤처업계 동료였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그분의 의사결정 방식은 저와 안 맞는 느낌이 있었다”며 “직장인으로서 그분이 사장님인 회사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공동선대위원장에 호남 류 외부 인사와 함께할 내부 인사로 김부겸 전 의원을 고려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문 대표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았지만 아직 고사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탈당자가 발생한 지역에 새 인물을 공천, 승부를 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우리 당 의원들이 출마를 하지 않거나 또는 탈당해서 비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나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대한민국 정치를 물갈이하고 우리당을 더 젊고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아 나아겠다”고 밝혔다. 그러

더민주

호남류 선대위원장 외부인사 찾기

김부겸은 공동선대위원장 고사

안철수 신당

창당 실무준비단 세부 조직 정비

정운찬 前총리 당대표 영입 추진

면서 “새해에 우리 당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물의 영입을 선보이겠다”며 “특히 젊은 피의 수혈에 중점을 뒀서 우리 당을 더 젊고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신당=안철수 의원은 이날 신당 창당 실무준비단(창당준비단) 세부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 세몰이에 나섰다. 창당준비단은 이태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당무혁신실장을 단장으로, 2개 TF와 7개 분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태규 전 진심캠프 정책실장이 정책 전반을 맡고, 박인복 안철수 의원 공보보, 김형민 전 진심캠프 기획실장 등이 공보보과위원과 조직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10인 회의 멤버 중 유일한 광주·전남 인사였던 김경록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기획분과에서 활동한다. 탈당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3일 안 의원의 탈당 이후 추가 탈당한 의원 숫자는 안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늘었다. 더민주 의석은 안 의원 탈당 전 127석에서 118석으로 감소했다. /연합뉴스

의원의 보좌진 일부도 준비단에 합류했다.

안 의원 측은 또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규모가 2년 전 첫 신당 시도였던 ‘새정치연합’ 때 374명보다 훨씬 늘어난 최대 1000명선으로 준비 중이다. 안 의원 측은 또 격차 해소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과 30~40대 인사들을 우선 발기인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당대표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날 무소속 김성식 전 의원과 전격 회동했다. 양측의 만남은 안 의원이 2014년 3월 안 의원이 당시 민주당과 통합을 결정한 이후 1년 9개월 만으로, 김 전 의원이 합류할 경우 안 의원 ‘원년멤버’들의 재결합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나아가 첫 독자세력화 추진 당시 창당준비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안 의원과 장시간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장관은 이를 통해 안 의원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했으며, 향후 신당 창당 과정에서 중책을 맡아 다시 안 의원 쪽으로 ‘کم백’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탈당 김한길 따라 몇명이나 나설까

선거구 확정안 직권상정 8일 직후 후속 탈당 규모 분수령

신당과 교섭단체 구성 여부도 촉각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김한길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후속 탈당 규모 및 신당과 그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2월13일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 더민주를 이탈한 현역의원은 김동철, 문병호, 유성열, 최재천, 권은희, 임내현, 황주홍 의원에 이어 이날 김 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안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앞서 당을 떠난 전정배, 박추선 의원까지 합해도 11명으로 현재까지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20명에 크게 부족하다.

아권 내에서는 선거구 확정안이 직권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8일 직후가 후속 탈당 규모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윤석, 김영록, 이개호 의원 등 전남 일부 의원과 광주의 장병완, 박해자 의원 등의 추가 탈당이 예상된다. 전남의 주승용 의원의 의정보고회 이후인 13일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전북에서는 김한길계의 김관영 의원 등이 탈당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수도권에서는 노웅래, 최원식 의원 등 일부 김한길계 인사들의 탈당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동안 탈당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일각에서는 탈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인사들을 모두 합하면 아슬아슬하게 20명 선이 되지만, 유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교섭단체가 구성 여부는 미지수다.

현행법에 따르면 탈당과 의원들이 같은 정당에 속하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 추이와 맞물려 신당 바람이 수도권까지 ‘복상’한다면 교섭단체 구성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당 추진 세력의 통합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탈당한 의원들이 일단 원내교섭단체 등록부터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탈당한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국회 의사일정 협의나 정치현안 협상에 참여하게돼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대 축으로 진행돼온 정국운영이 3당 체제로 바뀌게 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한 개 정당이 되지 않으면 국고로부터 정당 활동이나 선거와 관련해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있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중앙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월15일까지 통합신당 창당을 마치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총선까지 87억9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신당 돌풍…더민주와 치열한 경합

중앙 일간지 신년 여론조사…현역의원 교체 요구 비등

본보 여론조사, 광산구 현역 재지지를 광주지역 최고

신년을 앞두고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올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아직 공식 창당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이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나타났다.

조선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 등 중앙일간지가 주요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1일 발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에 대한 선호도는 새누리당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권의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새누리당을 앞서는 현상도 공통으로 나타나 아권연대가 이뤄질 경우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들 5개 여론조사의 방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신뢰수준 95%±3.1%)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이 28.7%로 1위에 올랐고, 안철수 신당(18.3%)과 더불어민주당(16.6%)이 근소한 차로 각축했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95%±3.1%)에서도 새누리당이 38.2%를 기록했고, 안철수 신당(18.9%)과 더민주(16.3%)가 경합했다. 한국일보-코리아리서치 조사(95%±3.0%)에서는 새누리당 37.

5%에 이어 더민주가 19.0%로 2위에 올랐다.

안철수 신당은 17.9%로 더민주를 바짝 쫓았다. 서울신문-에이서리서치 조사(95%±3.09%)도 새누리당이 35.5%로 부동의 선두를 달렸고, 더민주(18.1%)와 안철수 신당(16.2%)이 오차 범위에서 경합했다.

이번 총선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를 바라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서울신문-에이서리서치 조사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를 바라는 의견이 무려 55.4%에 달해 현역 재당선을 지지하는 19.1%를 두 배 이상 압도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여아의 텃밭인 TK(대구·경북)와 호남에서 현역 의원 교체를 바라는 의견이 각각 73%와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도 현역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2.4%를 기록했다. 현역 의원에 투표한다는 응답은 22.2%에 그쳤다.

한편, 광주일보가 지난 12월 28~29일 이틀간 광주전남지역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광주일보 1월1일자 1·2·3면》)에서는 광주 광산구의 현역의원 재지지가 28.9%를 기록, 광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odern & Different
GEMINI 제미니
펜던트

Modern & Different
LIBRA 리브라
펜던트

Antique & Artistic
BARCELONA 바르셀로나
펜던트
(2016.01.31까지)
Scale 20%

Active & Urban
CHANG-AN 장안
거실등 (180w)

Simple & Comfortable
NOVENA 노베나
거실등 (120w)

Luxury & Unique
ORCHARD 오차드
거실등 (120w)

Miracle & Mystery
PYRAMID 피라미드
거실등 (100w)
NEW

프리미엄 LED 홈 라이팅, 루씨엘
LUCIEL

설치에서 A/S까지 확실히 보증합니다
국내최초 조색 8단계 • 조광 4단계
취침 및 소등 예약기능 / 리모컨 제어(총 32개 모드의 컬러 및 밝기조작 가능)
[루씨엘 스토어 안내] 무료견적서비스 실시. 대리점으로 문의하세요.
•공향대로 본점(직영) 02-2088-5888 •안양점 070-4741-5503~4 •진주점 055-743-1020 •전주점 063-221-6902 •동탄점 031-8003-4411
•해운대점 051-747-7480 •대전소호 042-633-4236~7 •이천소호 031-637-4070~1 •순천점 061-723-0925 / <오픈예정> •울산점 •강릉점

KB국민카드
12개월
무이자 할부

www.myluciel.co.kr

Happy New Year!
Happy New Light!

2016

[전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 02-2088-8808